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6월 24일(화) 제 3118호

전북, 도민 체감 '특례사업' 속도낸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잇따라
전북혁신도시, 핀테크 중심 도약
연계사업 85건, 3조 6천억 규모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특례사업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 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 중 75건이 사업화 가능한 특례로 분류됐으며, 이 중 58건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17건도 조례 제정, 용역 착수, 부처 협의 등 실행 준비 단계에 있다.

올 상반기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미래산업 기반인 지구·단지·특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6월에는 남원, 진안, 고창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고, 군산과 부안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로 지정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반 기술산업,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유도할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이 외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등도 올 하반기 지정을 앞두고 있다.

산업지구 지정 외에도 특례 기반 현장 사업이 속속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는 발효식품 기업 대상(주)과의 협약을 통해 발효식품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중이며, 순창군은 21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생물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세계적 의료기관 '메이요 클리닉'과 공동연구 및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소재 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북도는 특례 실행과 연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방침으로, 총 85건, 3조 6,965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홍범도는 살아있다 광복 80주년·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이 2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개최됐다. <사진=광복회>

李대통령 첫 장관 인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 후보

11개 부처 장관후보자 공개
송미령 농수산부 유임

정동영 후보

안규백 후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 의원을 지명하는 등 11개 장관 후보자를 공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5선 중진인 전북 출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16 구데타 이후 첫 민간 국방부장관에는 5선 국회의원인 전북 출신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또 과기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가,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전 한나라당 권오을 전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명됐으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전 정권 인사임에도 유임됐다.

이와함께 부산 이전설이 제기된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부산 출신 민주당 전재수의원, 여가부장관에는 강선우의원이 지명됐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발탁됐고,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지명했다.

정동영 통일장관 후보자는 1953년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1978년 문화방송(MBC)에 입사해 기자와 앵커로 언론인의 길을 걷다 1996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입성한 뒤 제16대, 18대, 20대, 22대 국회의원까지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광주 서석고와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평화민주당 공채 1기로 정치에 첫발을 들였고 20대 국회 초반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은 것을 제외하곤 임기 내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시국 때 민주당 계엄상황실장,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권요안·윤수봉 도의원, 김관영지사 완주 방문 강력 반대

통합 여론조사 결과 공개 요구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
"군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권요안 의원

윤수봉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과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오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완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밀어붙이기식 통합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역시 "지금은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며 도지사는 완주군 방문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2천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차례 실시했으나, 도 집행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정당한 권한이며, 집행부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도의회 자문을 맡은 4명의 변호사들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의회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명시한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은 포함되지 않으며, 집행부가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응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는 완주 군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갈등 해소와 상생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전주서 개최

광복회·홍범도장군기념회 주관

광복 80주년 이달의 독립운동 및 봉오동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이 23일 오후 1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광복회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렸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전북대, 우석대 학생 등 350여명의 참석해 축하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국군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로터 시작된 무장독립투쟁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국군은 민족 자주의 역사적 뿌리를 잇는 존재이며 이제 흉상의 존치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委 출범

6개 분과 총 2,036명
체육·문화·AI 등
유치 활동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민간 주도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정한 '올림픽 데이'를 기념해 진행됐다.

이번에 출범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는 총 2,036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전북 14개 시군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체육, 언론홍보, 문화관광, AI학술, 지역발전, 도민참여 등 6개 분과 중심 체계적 구조를 갖췄다.

앞으로 전북 도민, 출향도민, 청년,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민간 중심 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유치 추진 전략은 각 분과에서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실행된다.

이번 유치 전략은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을 100% 활용해 SOC 투자를 최소화하고, 새만금국제공항 및 KTX 접근성, 민간 숙박과 특화형 체류 시스템을 결합한 실질적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도내 체육인을 대표한 청소년들이 무대에 올라 유치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주기점놀이 깃발 5기가 등장하는 상징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림픽은 전북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경제, 문화, 관광, 환경 등 지역 전반의 대도약을 이끌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의 밤' 야간 콘텐츠 관광 브랜드 육성

7월 18일까지
야행명소 10선 공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 전북야행명소 10선' 공모를 추진한다.

전북야행명소 10선은 도내 숨은 밤 풍경과 지역의 고유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전북의 밤'을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 대상은 전통문화가 녹아든 마을 축제, 지역 예술인의 공연, 푸드트럭과 야시장이 어우러진 도시공원, 자연경관에 라이트쇼를 입힌 수변공간 등, 체류형 야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장소들이다.

공모 유형은 △자연경관형 △도심랜드마크형 △문화역사형 △축제이벤트형 △엔터테인먼트형 △해양수변형으로 구성되며, 각 시·군은 최대 3개소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명소는 8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받게 된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잠깐 들렀다 가는' 소비형에서 '머무르며 즐기는'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후, 브랜딩 및 콘텐츠 고도화,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의 밤 풍경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야간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AI 기반 재난관리체계 도입

디지털 기반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도입 협약

전북자치도가 AI 기반 과학기술 재난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전환'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디지털 기반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예측과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도시침수 대응체계 실증 △데이터 수집 및 공유 △AI 기반 예측모델 개발 △정책 활용 및 기술자문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고성능 컴퓨팅(HPC)과 AI 기술이 적용된 도시침수 예측·분석 솔루션을 도입하고, 도내 실증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KISTI가 개발한 '디지털 도시침수 대응시스템'은 기상특보, 강수량, CCTV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실시간 침수 모니터링과 피해 예측, 대피 안내 기능을 제공하는 3차원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4월에는 도내 시군 재난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실무자 교육도 3차례 진행하며 체계적인 도입 준비를 마쳤다.

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기존의 경험 중심 재난 대응 방식을 탈피해,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ISTI와 전북TP는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 침수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현장 맞춤형 실증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2023년과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민선 8기 이후 현재까지 인명피해 '제로'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KISTI와의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과학기술 중심의 재난 대응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재난 사전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이고 지능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최형열 도의원, 대림아파트 노후화 민원 청취

효자1동 민원현장 방문
보완·신축·개선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2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의 대림아파트를 방문해 도 주택건축과 및 효자1동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이날 아파트 내 어르신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찾아 천장누수, 바닥 꺼짐 등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보완 또는 신축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진·출입로 확·포장 및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태 기자

"민생회복지원금 신속 지원 준비 갖춰야"

김관영 지사, 간부회의
장마 피해 예방 주문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한 건의 현안도, 한 줄의 예산도, 한 방울의 비도 놓치지 말고 '민생·예산·안전' 최전선에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음을 언급하며 "우리 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하는 매우 결정적인 시점"이라며, "국정기획위원 등을 중점으로 도의 핵심 현안과 입법·예산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정부의 2차 추경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이 확정되고,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소비 쿠폰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재난안전 대응에 대해 "올해 많은 강수량이 예보된 만큼, 상습 침수지역과 붕괴 우려 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와 현장 대응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박찬대 "내가 이재명 지키겠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청청래 박찬대 2파전

박찬대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는 8.2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박찬대 의원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결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결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며 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내란 종식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인 만큼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대표 출마 결심'과 관련, "숙고를 거듭한 고민의 대상은 경쟁 과정에서 일어날지 모를 갈등과 상처였다"며 "상대를 신뢰하고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청래 의원과 극한 대립을 경계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김병기 "김민석 인준 서둘러달라" 당부

전 세계 혼돈·위기
유가 인상 등 압박 가능성 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어제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 전 세계가 혼돈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장, 유가 인상과 더 강한 통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일과 모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김 대행은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지난 4년간 19%나 올랐고, 식품 물가는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했다"며 "여기에 미국의 이란공습에 따라 유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물가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물가안정TF를 구성했고, 내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민생 물가잡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 무주 안성초 통학로 지중화공사
2. **지중화 확정지역** : (시점)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26 ~(종점)칠연로 80 (L=0.6km)
3. **지중화공사 예정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4. **신 · 증설 고객의 지중공급 시행 기준일** :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약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와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내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 ○ 이면도로가 없는 지선도로(막다른 골목)인 경우에는 간선도로로부터 50m까지의 가공설비
7. **고객 안내사항**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 · 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약관 및 영업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 · 증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설계 선정

전주시, G-Town 청사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7년 말 완공

앞으로 조성될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인근에 들어설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의 청사진이 나왔다.

전주시가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G-Town'은 AI 기반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이 될 핵심시설로, 지역경제와 청년창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조달청이 대전청사에서 실시한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의 공모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3월 조달청에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 설계 공모를 의뢰한 바 있다.

당선작은 MICE 단지 내 다양한 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고, 대학생과 청년, 기업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통적 그리드 구조에 변주를 더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LIMITLESS CUBE'의 콘셉트를 제안해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당선작을 제출한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당선작이 선정된 만큼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전주 AI 활용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이 될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을 착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 건립에는 약 4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건물 내부에는 △500㎡ 규모의 테스트베드 겸 ICT 첨단공연장 △1360㎡ 규모의 가변형 입주 공간 △메타버스체험관 △가상현실스포츠룸 등이 들어선다. 또, 건물 외부에는 이벤트광장도 갖추게 된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 '윤곽'

<사진=전주시>

아울러 덕진권역 도시재생 거점시설(G-Town)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하고, 전담 조직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 세부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시설 조성과 더불어 전북대 구정문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일과 5일 문화공연(대학가요제)을 개최했다. 올 하반기에는 창업교육과 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환경 정비 등의 후속 사업도 진행된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G-Town은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전주의 미래를 대표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원도심 상인회 자율 참여형 소비촉진 축제

28일 객사길서 드림축제
체험부스 등 즐길거리 풍성

전주 원도심 객사길 일대에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완산구 객사길(메가박스 앞) 일원에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원도심 골목상권 드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자율 참여형 소비촉진 행사로, 공연과 체험, 경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유입을 유도하고 상권의 자생력 회복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하는 2025년 골목상권 드림축제의 두 번째 축제로 펼쳐진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지역 초대가수 무대 △플리마켓 △캘리그라피 △비즈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2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할인권과 상품권 등 경품도 제공된다

상권 홍보부스와 시식 행사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원도심 지역의 소상공인의과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이번 축제 당일에는 상권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며,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상권과 시민, 행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생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문 MC의 사회와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방문객을 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전주시는 전주의 첫 상업 중심지이자 문화적 상징이 깊은 공간인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이번 소비 축제가 역사성과 문화성이 결합된 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원도심을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원도심 드림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상인 스스로가 기획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자립형 골목상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소비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드림축제'외에도 △특례보증 지원사업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전주맛배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전주 함께장터 등 다양한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 확정 협의 본격화

107개 상생발전案 전달 이어
105개案 집중 논의 진행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공동대표 나유인·성도경, 이하 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시민협의회)가 양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23일 완주군 삼례읍에 소재한 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양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군민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한 이후 총 14차례의 분과회의(7개분과 2회)와 2차례의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전체 회의를 통해 107개 상생발전방안 심의 결과를 군민협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첫 대면 논의를 열고, 협의를 거쳐 시민협의회에서 수용 결정된 102개 사업과 변경 수용 결정한 3개 사업(△초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평준화 △지역대학 수소전문학과와 수소고등학교 연계 확대)을 포함한 105개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의회는 재검토사업으로 결정된 2개 사업(△읍·면 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학교로 육성)에 대해서는 양 협의회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2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읍·면 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된 2개 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서 법률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통해 협의회 간 이견이 있는 안건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전북도·전주시·완주군에 전달해 수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임기 만료 퇴직통장 320명에 공로패 수여

전주시는 23일 시청 강당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장 임기가 만료돼 퇴직한 320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시민들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오신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순돌 씨는 "통장 임무 수행을 통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전주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장 재직기간 동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성실히 봉사해 주신 통장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책 홍보와 주민 불편 사항 건의 등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신 통장들의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박혜숙 도의원, 점자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 △공공건축물 및 시설 내 점자 환경 개선 △점자 자료의 제작·보급 지원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경기전 수문장 교대의식 운영

이달부터 11월까지

달부터 주말마다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수문장 교대의식을 갖는다.

전주시는 23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경기전 일대에서 수문장 교대의식과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 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 '왕과의 산책' 등 다양한 경기전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문장 교대의식의 경우 6월과 9월, 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전에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문장 교대의식은 수문군 순라행렬이 어진길과 은행로, 태조로를 거쳐 경기전까지 이어지며, 같은 시간 경기전 정문에서는 국악 공연이 시작된다. 곧이어 경기전 정문에서 조선시대 궁궐의 수문장 교대의식이 재현되고, 순라행렬로 마무리된다.

또한 전주한지·기록문화·전주사고 교육·해설 프로그램인 '왕의 종이, 조선의 기억'은 6월 넷째 주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1일 2회)에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주한지의 아름다움과 기록문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를 연극 형식으로 배울 수 있다.

끝으로 '왕과의 산책'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며, 금요일은 힐링편, 토요일은 탐방편으로 각각 진행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전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경기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이지콜 운전원 애로사항 청취

CEO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23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CEO와 함께하는 '이지콜' 운전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지콜 운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서비스의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콜 운전원들과 공단 임원진 등 6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주형 착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에 동참하기 위해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운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셔틀버스인 어울림버스 4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장차량 63대,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30대를 운행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7월부터 바우처 택시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가족문화의 날 영화관 나들이

전주시는 지난 20일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화의 날' 두 번째 행사인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디즈니·픽사의 신작 애니메이션 '엘리오(Elio)'로, 드림스타트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가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문화 체험은 아동의 정서 발달뿐 아니라 가족 간 긍정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올 하반기에도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관람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덕진소방,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체계 강화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지난 6월 20일 오전 6시부터 6월 23일 오전 6시까지 72시간 동안 관내에서 총 8건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일동안 전주지역에는 간헐적인 강풍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됐고, 그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비 예보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장비 점검과 현장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양상규 현장대응단장은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적 기반의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농지은행 신청, '마이데이터' 확대로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30일부터 제출 가능 서류 8종으로 확대 인증 한번으로 간편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오는 30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천년의 숨결 '전주한지' 독일에서 만나다!"

국제협력진흥원, 한지체험강좌 獨 베를린·라이프치히서 진행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독일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천 년의 전통을 간직한 '전주한지' 체험 강좌를 진행했다.

진흥원은 지난 19일 주독일한국문화원과, 21일 작센주 라이프치히 한글학교에서 독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전주 한지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재)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전주한지를 활용해 독일 현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한지를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한지 공예품 만들기(팔찌·책갈피·그립톡·접시) △한글 스탬프를 활용한 한지 엽서 만들기 △한지 공기돌을 활용한 전통놀이('공기놀이') 등 다양한 코너를 즐기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지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한지를 통해 고향인 전북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기회가 된다면 전북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라이프치히에 거주 중인 이네씨는 "아주 재미있었다"며 서툰 한국어로 자신의 소감을 차분히 전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전북 전통문화 체험은 단순한 공예활동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멋과 매력을 독일에 소개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전북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024년 독일 작센주와 유럽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19일 주독일한국문화원과 21일 작센주 라이프치히한글학교에서 전주한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전주시>

지역 첫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매우호, 신규교류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운영하며 전북의 문화와 멋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을 홍보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독일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 이행 3년 연속 '매우 우수'

육상 김 양식 전국 유일 '주목' 6개 분야 40개 과제 성과 도출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기후정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년~2026년) 3차년도 이행계획(2024년) 추진실적 점검에서 도는 2024년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률 94.8%, 예산 집행률 94.9%, 사업 추진률 100%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기후 대응 실적을 입증했다.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전북자치도는 '물관리·생태계·건강·농수산·국토연안·산업에너지' 등 6개 부문 40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해왔다.

부문별로는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통한 하천 안정성 확보(물관리) △쿨루프 시공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열환경 개선(건강) △도시숲 조성(생태계) △스마트 양식산업 기반 확충(농수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국토연안) △수소차 충전시설 확충(산업에너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환경부가 전국 75건(광역 30, 기초 45)의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한 '기후위기 적응 우수사례'에 전북자치도의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전국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해양 오염과 수온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양식 방식으로, 고품질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육상 김 양식은 질병 관리에 유리하고, 좁은 면적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통 방식에 비해 생산 기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성장률은 10배 이상 향상시켜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후 적응 대책을 정교하게 추진해 전북이 기후정책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호우 피해지역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복구 총력

벼 침수 976ha 24시간 내 배수 재해보험 기간 연장 등 추진

전북자치도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복구에 나섰다.

전북도는 23일 부안군 계화면 일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호우 피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배수개선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복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산과와 농촌사회활력과, 부안군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부안군지부 등 유관기관 인사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의 침수 피해 논콩 재배지와 계화리 일원의 배수개선사업지를 차례로 점검하며, 침수 원인과 재해 사후 대책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8개 시군에서 총 1,382.9ha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 접수 시군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벼 재배지는 976.9ha로, 대부분 침수 24시간 이내 배수가 완료돼 생육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논콩은 6월 13~14일 침수에 이어 다시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생육 부진이 심화됐다.

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시군의 사실 확인과 복구계획 수립을 거쳐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파종 의향이 있는 농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했다. 벼는 7월 2일까지, 콩은 기존 마감일에서 7월 1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파종 한계기(7월 10일)를 고려해 수확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파종량 증가 지도 등도 병행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배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재해보험과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 농가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소리축제 '지속가능 친환경' 실천 푸드트럭 운영단체 공개 모집

내달 8일까지 푸드트럭 모집 다회용기사용 전기·공간 제공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은 2025 소리축제 기간 '푸드트럭' 운영 업체를 오는 7월 8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소리축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도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특히 도내 지역 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실천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푸드트럭 업체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도내 협동조합 또는 컨소시엄 운영이 가능한 단체다.

컨소시엄(대표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구성시 전체 참여 업체 중 도내 업체 비율은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보건증 등 조리에 필요한 각종 위생 및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집 규모는 1개 팀(최소 6개~최대 8대 내외로 푸드트럭 구성)으로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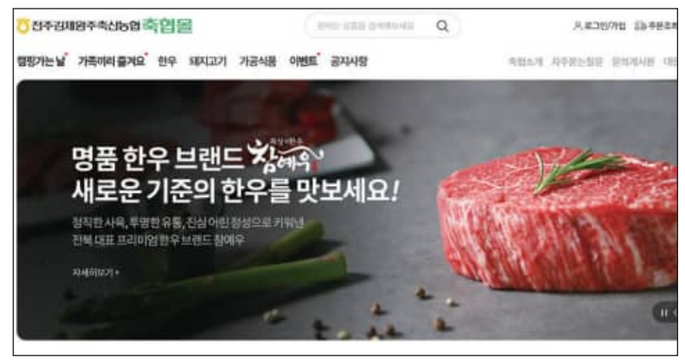
선정된 운영 업체는 올해 소리축제 기간(8.13.~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에서 오후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해야하며, 전기시설, 다회용 식기, 운영 공간, 홍보물 등은 소리축제 측에서 제공한다. 더불어 업체 측에서는 축제 당일 다회용기 운영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접수는 소리축제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7월 8일(화)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심사 및 선정 기준은 △메뉴 구성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성 △친환경 운영 가능성 △관련 경험 및 전문성 등이며 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17일(목)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축산물 온라인몰' 오픈

축협몰, 광역브랜드 '참예우' '믿음진 우리포크' 판매 개시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전주김제완주축협몰'을 정식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이날 개장한 '축협몰'을 통해 조합원이 생산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직거래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해 조합원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 오픈하게 되었다.

'축협몰'의 주력 상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예우'와 전주김제완주축협의 자체 돼지고기 브랜드인 '믿음진 우리포크'로 평소 소비자에게 신뢰성과 맛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이번 쇼핑몰 오픈을 통해 조합원들이 정성껏 키운 우수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우리지역 축산물 브랜드 신뢰도 향상을 동시에 이끌 수 있게 되었다"며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과 소비자의 만족을 모두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오픈 기념으로 '신규회원 첫 만남 이벤트'와 '1+1 구매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김제완주축협몰 홈페이지(jkwbee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주자 '새로'

산뜻, 부드러운 맛 애주가 인기 상한가 출시 2년 만 5억병 팔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2년 9월 중순 첫 선을 보인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Zero Sugar)'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또한,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으며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또한 '새로'는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담은 도자기의 곡선미와 물방울이 아래로 흐르는 듯한 세로형 홈을 적용해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감성을 녹임과 동시에 투명병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새로'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 등의 평가를 받으며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22년 9월 14일 출시 이후 4개월여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으며, 출시 7개월여만에 누적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출시 2년여만인 2024년 10월에는 누적 판매 5억병을 돌파했으며, 작년 봄에는 살구 과즙을 더한 '새로 살구', 올 봄에는 참다래 과즙을 더해 새콤달달한 맛을 살린 '새로 다래'를 선보이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또한,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2023년 9월 성수동을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대구로 장소를 옮기며, 새로의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팝업 스토어 운영 등 적극적 마케팅을 펼쳤고, 올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서울 압구정에서 팝업스토어 '새로도원'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작년 6월에는 미국 시장 진출 1주년을 기념한 유명 클럽과의 콜라보 마케팅 및 게릴라 판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새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주의 대표 주자로 자리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 2025년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운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여름철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해 23일부터 전국 영업점 고객 상담실과 객장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영업점 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온 전북은행은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올해도 고객과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객장 내 휴식공간을 개방하고 부채와 생수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무더위 쉼터는 전북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영업점을 개방하고, 부채와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등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민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 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현대, 16경기 무패 행진…K리그1 선두 질수

21일 서울과 1-1 무승부
27일 김천상무와 17경기 도전

전북 현대은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에서 서울과 전반 한골씩 주고받으며 1-1로 비겼다 <사진=전북 현대>

프로축구 K리그1 선두 전북 현대가 FC서울과 무승부를 거두며 16경기 연속 무패(11승5무)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은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에서 서울과 전반 한골씩 주고받으며 1-1로 비겼다.

16경기 연속 무패와 함께 승점 1을 추가한 전북은 12승6무2패(승점 42)로 선두를 굳게 지켰다.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3)과는 9점 차이다.

아울러 전북은 서울을 상대로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의 기세도 이어갔다.

이번 시즌 리그 득점 선두(12골)를 달리는 전북 전진우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가운데 선제골은 서울의 몫이었다.

전반 24분 코너킥 이후 흐른 공을 정승원이 오른쪽 측면에서 따내 투입했고, 이어진 린가드의 크로스에 류재문이 머리를 갖다 대 골 그물을 흔들었다.

하지만 전북은 전반 추가 시간 반격에 성공했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따낸 송민규가 감각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를 따돌리며 페널티 아크 부근까지 접근했고, 그대로 낮고 강하게 때린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송민규는 5월 3일 11라운드 원정에서 1-0 승리를 이끄는 선제 결승 골을 터뜨린 데 이어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연이어 득점포를 가동했다.

서울은 후반을 시작하며 둑스와 윙어 손승범을 각각 클리말라와 문선민으로 바꿔 화력을 끌어올리려 했다.

여기에 서울은 골키퍼도 강현무에서 최철원으로 바꿔 후반에 나섰다.

전북도 후반 14분 티아고와 미드필더 김진규를 장신 공격수 콤파뇨와 이영재로 교체했고,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29분엔 전날 입단이 발표된 가나 출신 공격수 츄마시를 이승우 대신 투입해 역전을 노렸다. 서울은 후반 37분 정한민, 전북은 후반 40분 권창훈 등 벤치 경쟁을 이어갔다.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2만2천862명이 입장, 폭우에 가까운 장맛비가 무색한 열기를 뿜었다.

다음 전북현대의 경기는 오는 27일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천상무FC와 김천 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제32회 전주시장기 볼링대회 이성화·최소영 우승

남녀부 개인전 1위 차지
총 500여명 선수 출전 경쟁

전주시볼링협회(회장 이영우) 주최 제32회 전주시장기 볼링대회에서 이성화(핀붐클럽) 선수와 최소영(트위너클럽) 선수가 각각 남녀부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전주 신광 볼링장에서 열린 이번 볼링대회에는 총 5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또 2인조에서는 남자부에 핀붐클럽 이성화·박기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초니스클럽 김덕자·강성태 선수가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3인조 단체전에서는 팀플렉스(정유능, 유가영, 주은성)팀이 우승을, 드림클럽(이승국, 최은회, 이숙제)팀이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영우 전주시볼링협회장은 "전북에 2000여명의 볼링회원이 활동중인데 현재 도내에는 국제규격의 32레인이 없어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볼링 저변 확대 및 대회 유치 등을 위해 볼링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교육청,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언어 발달 지연 유아 조기 발견
의사 소통 발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유아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전북교육청은 언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톡톡(Talk Talk)! 말해드림(Dream)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노출 연령 하향화 및 사용 시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 사례가 이어져 조기 개입으로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유아를 보편 지원하기 위해 도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누리과정 운영 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유아 종합 심리검사 진단 △언어 발달 증진 프로그램 운영 △언어 교재·교구 구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다문화가정, 이주배경 유아, 언어 발달 지연 유아가 많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기관당 100만~3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언어 발달 지연 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안정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도내 모든 유아들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통해 기초 학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이별 범죄 희생자 故이미수 집사 3주기 추모식 열려

전북 정읍에서 두 자녀의 어머니였던 故 이미수 집사를 기리는 3주기 추모식이 조용히 거행됐다.

지난 16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지파장 최중일·이하 신천지 도마지파)는 교회 내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성도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고인은 가족과 신앙 공동체 내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 참석한 성도들은 고인의 삶과 신앙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한 성도는 "늘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던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며 "아직도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추모했다.

이미수 집사는 2022년 6월, 전 남편의 흉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함께 있던 옛 처남댁도 희생됐고, 처남 역시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이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며 사회에 충격을 줬다. 법원은 이를 '계획적 이별 범죄'로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5년,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극 속에서 모 기독교 언론은 가해자 A씨가 주장한 '종교 문제'를 근거로 "전처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식의 왜곡 보도를 이어갔다. 특히 해당 언론은 피의자에게 종교 문제를 범행 동기로 유도하는 질문을 직접 던지고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해, 의도적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을 '계획적인 이별 범죄'로 명확히 판단했으며, 수사기관과 전문가들 역시 "이 사건은 이혼과 양육 문제 등 복합적인 가정 불화에서 비롯된 개인적 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기성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피해자를 '가정을 깬 가해자'로 몰아가는 보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수민 기자

전주예수병원·캄보디아 IU의과대학, 협약 체결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력 양성
국제적 연대의 장 이어 나가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이 전 세계 의료선교 활동을 위해 캄보디아 IU 대학에서 의대생 및 간호대생 학생 10명을 초청해 2주간 연수를 마쳤다.

예수병원이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이하 'IU대학') 산하기관인 Sen Sok International University Hospital과 학술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IU대학 소속 의과대학생 4명,간호대학생 4명 등 연수생 10명을 초청해 예수병원 암센타, 정신건강의학과, 내분비내과외래와 중환자실(ICU)에서 교육 협약을 이행했다.

캄보디아 예수병원·전주 예수병원 소통 책임자 김서현 담당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한옥마을을 방문한 캄보디아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멋과 맛을 소개하며 양국 간의 우정과 문화적 이해를 한층 더 높였다.

예수병원은 캄보디아 현지 의료진 양성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예수병원에 근접한 IU의과대학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예수병원을 운영하면서 "선교적 본질은 지키되,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고민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는 학술·교육 협약을 통해 국제 의료협력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1가구당 월 1만7,600원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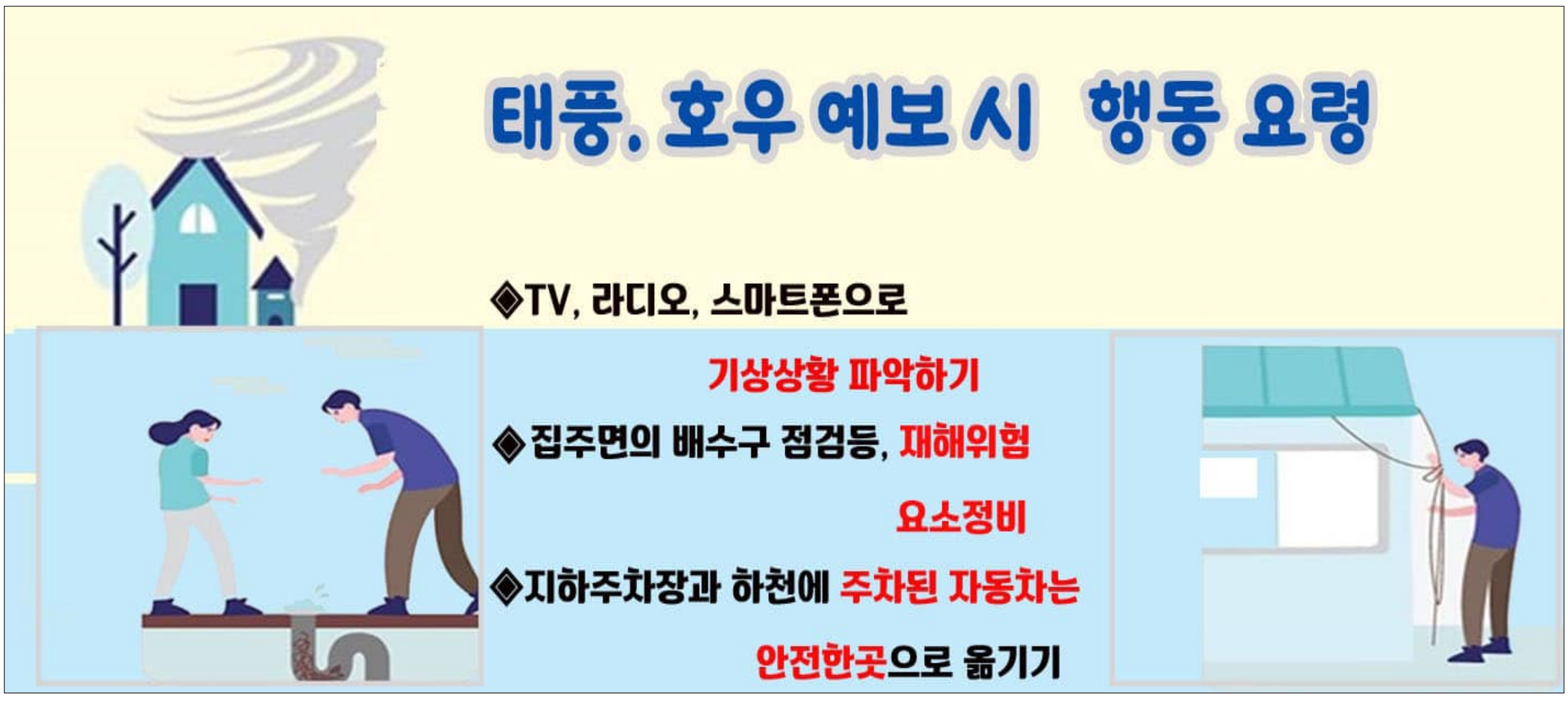
해당자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가구당 1회선 지원되며,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7,600원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18억7,100여만 원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MZ세대와 '브런치 소통 토크'

정읍시가 MZ세대 신규직원과 함께하는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를 정례화하며, 세대 간 공감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일, 근무 경력 1년 미만의 신규직원 12명과 이학수 시장이 함께하는 '브런치 소통·공감 토크'를 세 번째로 열고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정례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점심 식사를 매개로 한 편안한 대화의 장으로, 공직생활에 대한 궁금증부터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다.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브런치 토크를 통해 시는 MZ세대 직원들의 진솔한 고민과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실질적인 반영을 시도해왔다. 시는 이러한 소통이 직원 개개인의 소속감을 높이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본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곧 시정 운영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장애인, '내 일' 찾는다 장애인 무료 직업 소개소 운영

익산시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종합상담, 구직 등록, 일자리 알선 등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총 110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15명의 장애인을 도내 주요 기관에 취업 연계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취업처는 전북농업기술원과 원광대학교병원, 모현도서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다.

시는 취업 이후에도 사후지도를 통해 장애인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임신·출산 준비 부부 최대 200만 원 지원

익산시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과거에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관련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과 관찰 △배아이식 △시술 이후 검사비 △착상 및 유산 방지 주사제 비용 등으로, 시술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된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난임부부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하반기 공공일자리 본격 착수

30일~7월 2일 참가자 접수 하루 4~5시간 주 5일 근무

익산시가 구직난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오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총 129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기 공공근로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필요한 현장 일손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 분야 인력으로 103명을 모집하며,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주요 근무지는 공원, 체육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6명을 모집하며,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다문화가정 지원, 관광자원 활용, 폐자전거 재활용 등 지역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이며, 신청 자격은 모집 시작일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익산시민으로, 재산·소득 등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농촌 정착, 정읍이 책임진다"

귀농·창업주택자금 저리 지원 창업 최대 3억·주택 최대 75백만

정읍시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인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정부 예산으로 이차를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세대당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실적과 대출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7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영농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귀농 초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읍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오는 26일 조사지점 선정 결과 조사 전 과정 설명

국방부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옥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산 비행장 군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국방부와 용역사가 참석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소음영향도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며, 이를 위해 군산시는 상반기에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소음 영향도 조사지점 후보지를 추천하였다.

국방부는 현장 조사 및 의견 합의를 거쳐 최종 조사지점을 결정하여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사지점 최종 선정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소음 영향도 조사 전 과정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29일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 등 36.6㎢ 지역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여 합당한 보상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소음 영향도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공간정보·지적 분야 연구 발표대회 '장려상'

김창현 주무관 수상 2년 연속 '쾌거'

군산시가 '2025년 공간정보·지적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진=군산시>

군산시가 '2025년 공간정보·지적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19일~20일까지 부안 변산에서 개최된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주최로 공간정보·지적분야 발전과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공간정보 기술 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 지적 중심의 행정체계를 넘어 AI·메타버스·데이터 기반의 융합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회에 앞서 도내 공무원, 관련 대학,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했으며, 총 29편 중 8편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이날 본선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8편은 △지번 연계 정보 등록·관리 체계 제도화 방안 △국·공유재산 지목 불일치 해소 방안 △인허가 준공에 의한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를 통한 토지 지목 현실화 방안 △AI 기반 토지 합병조건 확인 시스템 구축 △LX 플랫폼 활용 국가기반시설 현황분석 △메타버스 기반 가상 국토관리 및 지적 재조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제공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온라인 감성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이 중 김창현 주무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지목 불일치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하여, 국·공유지의 실제 토지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불일치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발표는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받았다. 이로써 군산시는 전년도 이종원 주무관의 '효율적 지적기준점 체계 관리 방안'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장려상 수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 관계자는 "바쁜 업무 중에도 공간정보 및 지적발전을 위해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발표한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국가유산지킴이의 날 기념행사

조선왕조실록 수호한 두 선비

임진왜란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두 선비 안의와 손홍록의 숭고한 헌신이 433년이 오늘날 내장산 자락에서 되살아났다.

시는 지난 22일, 국가유산지킴이의 날을 맞아 내장산 우화정 특설무대에서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정읍의 역사와, 관의 지원 없이 사재를 털어 문화유산을 지켜낸 두 선비의 결단과 민간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기념식에는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석했다. 클랑앙상블의 연주와 청운사 향원 스님의 성악 공연이 어우러지며 문화유산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달했다.

기념식 후에는 실록과 어진을 품고 내장산 용굴로 향했던 433년 전 그날을 되살리는 이안 재현 행렬이 이어졌다. 시민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 행렬은 실록을 품에 안고 험한 산길을 걸었던 선비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확대해 연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 특히 안의·손홍록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는 무대는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공감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본격 가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된 2,000여 가구 대상

익산시가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본격 가동하며 복지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66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는 취업이나 재산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최대 3년까지 가까이에서 돌보는 제도다.

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익산시가 고안해 낸 복지 정책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공적 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주거·채무·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위해 여는 '2025년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판매 유통망(플랫폼) (열린 장터(오픈마켓),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실시간 상거래(라이브커머스)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유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자체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군산시는 총 10개소 내외의 소상공인을 선정해 △상인 교육 △상세페이지 및 홍보 영상 제작 △전문 상담(컨설팅)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 및 각종 온라인 시장(플랫폼) 입점 등 전반적인 온라인 판매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전자 우편(gcdrf@naver.com) 및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군산공설시장 3층)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2025년 군산 대표하는 맛집 35개소 선정

군산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를 육성하고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군산 대표 맛집' 35곳을 23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 진행된 영업자 신청 및 시민 설문조사 등 추천을 받았으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군산맛집 발굴 육성위원회의 현지 시식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육성위원회는 음식점 음식의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군산의 맛을 대표하는 군산 맛집으로 최종 지정했다.

올해 신규 지정 맛집은 미장동의 모트 1개소로 맛뿐만 아니라 위생·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앞으로 모트는 기존 맛집 34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업소에는 맛집 지정서 및 표지판이 전달되며,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지송길 기자

김제시, 노후공장 리뉴얼 사업 선정

순동산단, 조성 30년 만 복지공간 확충 등 청년층 유입 촉진

김제시(시장 정성주) 순동산업단지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산업단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순동산업단지는 38개 기업이 877명을 고용하고 연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지만, 조성된 지 30년이 가까이 되고 다수의 공장이 20년 이상 노후화돼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앞으로 순동산단이 청년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공장 외벽·지붕 개보수 △휴게실 및 복지공간 확충 △작업환경 안전성 강화 △녹지·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리뉴얼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한 시너지 극대화로 순동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김제시가 청년 친화적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9만1천명 찾아

수박·장어 할인판매 등 우천 불구 방문객 호응

고창군은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약 9만1000여명의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축제에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 지역 명품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장어 할인판매와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즐겼다.

특히 우천 속에서도 수박빨리먹기대회, 수박&장어 시식행사, 고깔고깔 수박찾기 게임, 장어 잡기 행사, 수박카빙대회 등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고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존에서는 우산을 쓰고서도 기꺼이 줄을 서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축제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기가수 김수찬과 요요미가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열정적인 축하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버블&벌룬쇼와 마술쇼 공연을 하는 키즈콘서트 등도 비에 젖은 관객들을 위해 더욱 신나고 재미있게 꾸며져 방문객들이 날씨를 잊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즐겨주신 덕분에 고창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려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군수 "부서간 업무 공유 강화" 당부

부안군, 6월 연석회의 개최 자연유산 활용 정책 주문도

권익현 부안군수가 부서간 협업 및 업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3일 열린 6월 연석회의에서 "행정이 복합·다변화되면서 부서간 유기적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국비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 정책 연계 대응 등은 여러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는 자신의 업무가 타 부서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행정은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눌 수 없다.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부안군 전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정부는 자연유산 보존·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제1차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명승·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본격 추진 중이다"며 "부안이 보유한 다수의 자연유산을 관광, 생태, 교육 등 지역 특화형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실행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향우회, 사회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연중 수시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며 "이들 단체의 활동은 지역 공동체 유지 등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행정과 단체와의 교류 및 소통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식품산업硏, 미식 관광 디저트 '호평'

복분자·땅콩 등 로컬푸드 활용 디저트 5종 선봬

고창군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군 미식 관광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2회 복분자와 수박축제' 현장에서 디저트 중간 시식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는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통해 디저트 완성도를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간 점검 성격으로 실시 됐다.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 땅콩, 블루베리, 단호박, 새싹보리를 활용한 디저트 5종을 대상으로 티라미수, 단호박 케이크, 복분자 큐브식빵, 블루베리 모찌, 땅콩·장어 쿠키를 선보였다.

평가에선 "땅콩쿠키의 고소한 풍미는 즉시 판매 가능할 수준"이라는 호평이 있었다.

또 복분자 티라미수와 장어쿠키 등은 "맛은 우수하지만 식감 개선 및 시각적 차별화 필요"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제품 개선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 될 예정이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식관광 활성화와 로컬 푸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28일 라벤더 정원 음악회 연다

오후 4시 상하농원서 팝페라 앙상블 선사

고창문화관광재단이 매일유업 상하농원과 함께 오는 28일 오후 4시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에서 '라벤더 정원 음악회 in 상하농원'을 연다.

음악회에는 국내 팝페라 앙상블 PROST(단장 안성민)가 출연해, 자연과 어우러진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총 250석 한정 무료 입장권으로 운영되며, 상하농원 매표소 현장 배부 또는 상하농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민은 농원 입장료가 면제되지만 음악회 입장권은 별도로 수령해야 하며, 타지역 방문객은 입장료를 지불한 뒤 입장권을 수령해야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세계유산 음악 산책'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상하농원과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정적인 유산 관람을 넘어 음악·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형 체험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고창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창환 상임이사는 "고창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계절을 아우르는 작지만 깊이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고창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 하반기 사업 논의

6월 연석회의 개최

새마을운동부안군지회(지회장 권명식)는 새마을지도자부안군협의회(회장 박종식), 부안군 새마을부녀회(회장 임복순), 새마을문고부안군지부(지부장 김현순)와 23일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6월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군 회장단 및 각 읍면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회장 및 총무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사업 등에 관한 협조 사항과 특히 오는 7월 5일부터 문을 여는 모항해수욕장 개장식과 관련 해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객 맞이 방안에 대해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권명식 지회장은 "새마을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등에 전념하고, 또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항해수욕장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늘 변하지 않는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함께해 더욱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새고창장례식장 조미영 대표, 5백만원 기탁

지난 20일 고창군청 군수실에서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 기탁식'이 열렸다. 이날 기탁식에는 새고창장례식장 조미영 대표와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참석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조미영 대표는 이번 기탁에 대해 "새고창장례식장 창립 19주년과 故 인암 조병채 원장님의 7주기를 맞아 그 뜻을 기리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생전 인재육성에 깊은 애정을 가지셨던 故 인암 조병채 원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에 심덕섭 군수는 "매년 고창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을 실천해 주시는 조미영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창군도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에 더욱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영 대표는 그동안 매년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은 물론 웰다잉 인식향상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맞춤형 지원정책 실시간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문자알림서비스'를 23일부터 본격 운영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때 받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정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문자 서비스로 소상공인들이 정책 정보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 28일 정식 개장

고창군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을 오는 28일부터 정식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시설이 완비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청결한 수질 관리와 안전요원의 상시 배치로 누구나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개장기간은 8월 29일까지이며, 초등학생 방학 전인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월, 화, 수요일에 휴장하고 방학기간인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매주 월요일에 휴장한다.

또한 개장기간 중 우천 시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장 인원은 오전과 오후 각 200명으로 제한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100%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현장접수 70%, 사전 예약 30%(오전 60명, 오후 60명)으로 운영된다. 입장료는 무료로,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무더위를 식히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며 "많은 분들이 고창나들목공원 물놀이장을 찾아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7월 25일까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을 위한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7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비료, 생산기반시설, 포장재, 유통장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보조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을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등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산림녹지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건강·복지증진 기대

부안군은 여성농업인의 건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2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전주병원의 이동 검진버스를 활용해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대상자 중 50여명이 참여해 건강 상태를 점검 받았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돼 검진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원이며, 부안군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을 지원해 5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검진은 7월 말과 8월 말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군, '일자리 품앗이' 인력난 해소

유휴인력–중소기업 맞춤 매칭
단시간 근무로 구인난 도움
고용 유지 시 촉진수당 지원

완주군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과 유휴인력을 매칭하는 '2025년 완주군 일자리 품앗이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일자리 품앗이 지원사업은 여건상 8시간 근무가 어려운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는 도내 주소를 둔 만 20세~65세 이하로,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고용지원단)를 통해 기업과 근로계약(4시간~6시간/1일)을 체결하면 구직자에게는 교통비(1만원/1일)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최저시급의 20%(최대 4시간/1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고용촉진수당을 1개월 만근시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일자리 품앗이 지원사업'이 단시간 일자리 창출을 넘어 기업성장과 지역 일자리 혁신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구직자는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단(063-263-0042)으로 문의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제20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회문산 해원제…6·25희생자 넋 기려

회문산 일원 희생자 추모
유가족 등 200여명 참석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에서 6.25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제20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위원장 김윤석)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회문산 일원에서 희생된 순국선열과 무고한 양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의장, 순창군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유가족,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위령제, 추념사와 추모사, 헌시 낭송, 비목 제창 등 경건한 분위기 속에 차분히 이어졌다.

구림면 청년회 김현근 회원의 '외로운 흔백을 위하여' 헌시 낭송과 참석자들의 '비목' 노래 제창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7733부대 3대대 장병들의 조총 발사로 희생자들에 대한 예를 다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희생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만든 뿌리임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제95회 춘향제 사진전 전북도청서 개최

남원시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에서 제95회 춘향제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춘향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길놀이, 춘향제향, 각종 공연 등 축제의 생생한 순간을 담은 사진 20여 점이 전시됐다. 관람객들은 사진을 통해 축제의 다채로운 모습과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도청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퀴즈와 포토타임 등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홍보대사인 방송인 개그맨 김범준씨가 MC로 참여했으며 제95회 선발된 춘향이(진 김도연, 선 이지은, 미 정채린, 정 최정원, 숙 이가람)도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감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보다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문화대 지리산문화해설사 30명 양성 수료식

남원문화대학이 지난 20일 금요일 지리산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리산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은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12회 이론 교육과 7회의 현장답사로 진행됐으며, 30명의 수료생이 (사)평생교육진흥연구회 검정 지리산문화해설사 2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해당 교육은 지리산 주변 지역 거주민들이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갖춰 이를 관광객이나 방문객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해설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참가자 3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교육소감 발표, 시 낭송,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돼 수료생들의 성취와 성장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원문화대학은 지난 2000년도 설립됐으며, '남원문화유산해설사' 자격 과정을 시행하다가 2014년부터 교육부 공인 제55호 '사단법인 평생교육진흥회' 공동 '지리산문화해설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부산국제철도산업전서 관광지·축제 홍보

장류축제·떡볶이페스타
교통 인프라 연계 마케팅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참가해 순창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철도 전문 전시회로, 철도산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새로운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주목받았다. 실제로, 철도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참관객, 여행객, 콘텐츠 기획자까지 폭넓은 관람층이 방문해 전시장의 열기를 더했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순창의 정체성을 살린 고품격 전시공간을 마련해, 강천산, 채계산, 순창발효테마파크 등 대표 관광명소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오는 10월 개최되는 '순창장류축제'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순창 떡볶이페스타' 등 지역의 대표 축제를 널리 알리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 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 참가해 순창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축제를 홍보했다. <사진=순창군>

현장에서는 순창을 대표하는 발효문화 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전시와 함께, SNS 팔로우 이벤트,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관람객들은 직접 체험하며 순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표현했고, "순창 고추장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될 줄 몰랐다", "순창은 발효의 도시로만 알았는데 산과 여행 코스도 매력 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선윤숙 재단대표는 "앞으로도 철도관광과 같은 다양한 교통·인프라 연계 콘텐츠를 활용해 순창을 다시 찾고 싶은 감성여행지로 각인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사업 발굴

유희태 군수, 확대간부회의서
장마철 대비 등 현안 강조

완주군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대응, 여름철 재해 예방,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각 부서에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 기조, 향후 발표될 국정과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침수 및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주택·상가,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오수맨홀, 우수관 등의 이물질 제거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요 공약과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 장애인 건강관리 '우수'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지역 자원 연계 운영 성과

남원시보건소가 지난 20일 열린 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통합성과대회에서 '2025년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렸으며, 2024년 장애인 재활서비스 수행 실적과 자원활용 우수성, 사업운영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남원시보건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비장애인과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요구도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을 통한 보건-의료-복지 지역자원과 연계협력해 다양한 재활사업을 운영했다.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0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통합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남원시>

특히 지난해 지역사회 장애인 7% 이상을 등록해 재활훈련 및 통합보건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재활사업, 장애인 차량이동 지원으로 재활사각지대인 퇴원환자 장애인의 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여 일상생활 독립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활운동실을 확장 리모델링하고, 작업치료실 신설, 재활 장비 신규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중점 추진했으며, 공사기간에도 재활운동실을 남원시 이음센터 일부 유휴공간으로 이전 운영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2025 효도대상 시상식' 48명 표창

효행 13명 장한어버이 26명 등
공연 등 어르신 위안행사도

완주군이 주최하고 효사랑실천전북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완주군 효도대상 시상식 및 어르신 위안행사'가 지난 20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성료됐다.

이날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하고 어르신들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자리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모범적인 효행을 실천한 주민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안우연 효사랑실천전북협의회장, 김영기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시상식에서는 ▲효행인 13명 ▲장한 아버지 13명 ▲장한 어머니 13명 ▲완주경찰서장 표창 2명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장 표창 2명 ▲효사랑실천협의회 감사장 3명 ▲전북연합신문사 표창 2명 등 총 48명이 각계 기관장들의 표창을 받았다.

오상영 센스안경원·금강보청기 삼례점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초중고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사의 사전 공연과 본 무대도 풍성하게 진행됐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윤기 식품위생안전정보원 대표 순창군 '고향사랑' 500만원 기부

순창군은 23일 식품위생안전정보원 전윤기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윤기 대표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 사업장 운영과 인증 취득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품위생안전정보원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 대표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인증과 제품개발 컨설팅을 진행한 인연을 계기로 순창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2년 연속으로 순창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사랑장학재단 등 다양한 지역에 걸쳐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나눔 문화를 실천해 왔다. 아울러 이번 기부로 받은 답례품인 순창사랑상품권 150만원 상당도 팔덕면에 2차 나눔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있다.

전윤기 대표는 "비록 순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순창군과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불편 줄이고 효율 높인다" 규제혁신

규제개선공모전 선정건 심의
'노인돌봄 경력인정개선' 최우수

완주군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완주군은 최근 2025년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5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성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등 13명이 참석해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했고, 이 결과 송주연 인구가족과 주무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력인정 비율 개선'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어 오지은 환경위생과 주무관의 '식품영업신고에 따른 사업자 간편 등록'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3건이 장려 과제로 선정되며 총 5건의 과제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또한, 민생과 밀접한 자치법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완주군은 타 지자체와의 허가·지원 분야의 규제 격차를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은 지난해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창길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의 '수의계약 시 임대방식 허용' 건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정부가 수용하고 실제 법령 개정까지 이뤄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혁신"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시민이 직접 설계한다

2035 시민계획단 첫 회의

남원시는 지난 17일 '2035 남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민계획단'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사랑나눔 어울림센터, 운봉읍사무소, 인월면사무소에서 시민계획단 운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남원시의 지역현안과 미래 비전,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안하며 남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설계하게 된다.

이번 계획 수립은 '23년도에 공모선정된 '동문밖마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인우가 다시 참여했으며,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 협동조합인 따뜻한소통협동조합이 시민계획단의 운영을 맡았다.

지난 17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분석과 문제점 도출, 남원 미래상 초안이 논의됐으며, 향후 2주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한 동지역, 운봉읍, 인월면에서 추가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평생교육 단기특강 수강생 선착순 모집

장수군은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5년 평생교육 여름 단기특강'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여름 특강은 생애주기별 관심사를 반영한 실용 중심의 강좌들로 구성됐다.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 전략적 은퇴준비' '월급쟁이 부자들의 비밀노트'를 비롯해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지혜로운 부모되기' 등 총 5개 과정이 운영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여름 단기특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자기 계발과 가족 간 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폐아이스팩 재사용 앞장 환경파괴·경제적 도움 기대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폐아이스팩의 재사용을 위한 세척 작업이 지난 19일 관촌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척된 아이스팩은 무더위를 앞두고 아이스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임실, 관촌시장 상인회에 보내 재사용 될 예정이다.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해 환경파괴도 막고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환경오염 우려와 아이스팩 재사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폐건전지, 종이팩 등 기존 교환 사업 품목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상패와 아이스팩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읍·면사무소로 가지고 가면 아이스팩 5개당 화장지 1롤 또는 새 건전지 1개와 교환해 주고 있다.

심 민 군수는 "환경보호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솔선수범 해준 관촌 새마을지회 부녀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재활용품 수거 교환 사업에 군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동호인 테니스대회 4백여명 참가 성황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펼쳐진 '2025년 진안홍삼배 전북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 내 4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안군 다목적테니스장 등 6개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는 여자 2점 페어부, 남자 2점 페어부, 남자 12점 페어부 총 3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또한 경기 내내 뛰어난 기량과 강한 투지를 보여줬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스포츠맨십으로 대회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대회 결과 △여자 2점부에서는 권희수(무소속)·김민지(남원하이텐션) 선수가 △남자 2점부에서는 구자범(익산한샘)·박경택(익산모현) △남자 12점부에서는 정우영(고창일요)·최은복(전주완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개최지인 진안군 진안클럽에서 출전한 배순진 선수와 장현 선수가 남자 2점 페어부에서 공동 3위에 입상하며 선전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안이 동호인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수분마을, 마을문학 공모 선정

인구소멸지역 역사 예술작품 재탄생 미래 가치 확산 기대

장수군 수분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전북형 마을문학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장수군 수분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전북형 마을문학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형 마을문학프로젝트'는 인구소멸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문학과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등 인구소멸지역을 문화적 재생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시 마을의 이야기를 구술·채록해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작품으로 재구성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수군은 수분마을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문학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계획이다.

수분마을은 지난해 11월 뜬봉샘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위치해 '물뿌랭이 마을'로도 불리는 수분마을은 국가등록문화재 제189호인 수분공소를 간직한 유서 깊은 마을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근대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마을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 글로 남기는 뜻깊은 작업이 될 것이다"며 "수분마을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견훤대 정밀 발굴 관광 자원화

삼국서 조선시대까지 토기·기와현 등 출토

임실군이 강진면 갈담리에 위치한 견훤대(甄萱臺)에서 정밀 발굴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후백제 문화유산 학술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정밀 발굴 조사는 고고문화유산연구원(원장 한수영)에서 맡았으며, 연구원은 2024년에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 조사를 마쳤고, 올해 5월부터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견훤대는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담천과 섬진강의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변을 조망하기에 매우 탁월한 곳이다.

임실군 최초의 사찬 읍지'운수지(雲水誌)'(1675)에는 견훤대가 갈담교 위에 있으며, "신라말에 반란을 일으키고 완산에 웅거하면서 여기에 대를 쌓고 강무(講武)하는 곳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730년 '운수지(雲水誌)'에는 견훤이 "대 위에서 말 타고 놀았다고 해 일명 희마대(戱馬臺)라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발굴 조사 결과, 견훤대 정상부에서는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은 건물대지가 확인됐으며, 삼국시대 집수시설, 조선시대 회곽묘와 토광묘, 그리고 정상부 주변에 석축 등이 조사됐다.

학술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정상기 무주태권도박물관장, 강원종 세계문화유산연구재단 연구원은 한결같이 견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발굴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주목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발굴을 계기로 그 역사성과 중요성을 토대로 향후 관광자원으로서 경관 조성은 물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체납 확인~납부 투명 효율적 재정 운영 기여

무주군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납세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하던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발부 및 독려 전화는 납세자의 주소 이전,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안내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는 납세자 주소지가 무주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정착시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꿀벌활동단' 귀농귀촌 체험

농촌사회 참여·관계형성 3주 과정 청년캠프 참여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2025년 귀농산촌 청년캠프 '꿀벌활동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꿀벌활동단'은 예비 귀농·귀촌 청년들이 자원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참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안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도시 청년 8명이 참여하며, 3주 동안 총 35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진안군의 역사, 인문학, 문화, 시설 체험 및 교육을 통해 귀촌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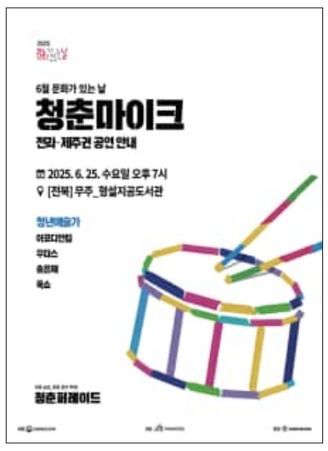
이번 캠프는 23일 입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꿀벌활동단 발대식, 제과제빵 수업 및 체험, 농가 일손 돕기 그리고 봉사단 결과보고회 및 팜파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으며, 7월 11일 해단식 및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꿀벌활동단'은 청년들이 벌처럼 부지런히 지역에 참여하고 꿀처럼 달콤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캠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진안의 농촌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청년 예술가 무대 '풍성'

25일 상상반디숲서 '청춘 마이크' 공연 펼쳐



오는 25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무주군 무주읍 무주상상반디숲 1층 광장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공연에서는 청년 예술가 아코디언 킴, 우더스, 송은채, 그리고 조성욱의 육쇼까지 총 4팀의 다채로운 무대와 만날 수 있다.

송순호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도서관팀장은 "아코디언의 감미로운 선율부터 싱어송라이터의 진솔한 노래,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마술 공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라며 "청년 예술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관객들의 흥을 돋우게 될 청춘 마이크 공연에 가족과 함께 많이들 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김정흠 임실군의원 "송전선로 지역 이익 전무"

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설로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정흠 의원이 지난 2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와 단호한 대응을 하라며 압박했다.

김정흠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전라권역에 5개의 송전선로 및 1개의 개폐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후보지에 임실이 포함돼 있고 임실 전역이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확대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문제 △345kv 송전선로 기준 30%의 지가하락, 근저당 설정 제약과 같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우리 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송전선로 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의무교육

장수군은 지난 2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37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총 5차시로 구성됐으며 1~4차시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진행했고 마지막 5차시는 장수군 자체교육으로 병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 범죄 예방, 농작업 안전 수칙, 근로 시 유의사항 등 계절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교육장을 방문해 "장수에 오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들도 지역 농업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이다"며 "언어가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장수군을 제2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N치즈축제 제1기 청년기획단' 발대식

故 지정환 신부 개척 정신 계승 청년 주도·참여형 축제로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지역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군은 최근 임실창고 1964에서 '임실N치즈축제 제1기 청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축제의 방향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故 지정환 신부가 산양 두 마리로 마을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를 만들어 냈던 개척 정신을 계승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1기 청년기획단은 임실N치즈축제를 사랑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 청년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축제 프로그램 제안, 홍보 콘텐츠 제작, 현장 운영 참여 등 축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실N치즈축제 문영두 제전위원장은"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임실N치즈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며"청년기획단과 함께 임실N치즈축제를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골프존 문화재단·골프존 카운티 무주군에 1천만 원 상당 생필품

골프존 카운티는 (재)골프존 문화재단과 함께 23일 무주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생필품 키트(즉석밥, 라면, 김, 카레 등) 250상자(1천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김영찬 (재)골프존 문화재단 대표와 서상현 골프존카운티 대표는 "골프존 이웃사랑 행복나눔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라며 "생필품 키트로 전해지는 먹거리가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예수병원유지재단, 병원장·이사장 이·취임식

제26대 신충식 병원장 제22대 임현희 이사장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 제26대 병원장 신충식, 제22대 예수병원 유지 재단 이사장 임현희, 부이사장 박성광, 이사 고영환, 김호성, 박성규, 박진용, 박형식, 신충식, 이병호, 이승욱, 최종호 (총 12명) 이임 및 취임 예식이 진행됐다.

예식 설교를 맡은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지난 20일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주제로 신임 리더들에게 영적 비전과 사명감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병원 본관 예배실에서 전했다.

이날 신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가 되어, 예수병원과 이사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취임식 예배 후 병원과 재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고영환(전주금성교회 담임목사) 이사장 노고에 감사했다.

특히 제26대 신충식 병원장·제22대 임현희 이사장 취임사와 함께 예수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김영태 기자

익산 어양동 주민들, 오임선 익산시의원에 감사패

익산시 어양동 통장협의회(회장 원영이)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상묵)는 어양동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송전탑 철거 및 고압송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오임선 익산시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임선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돼 매우 보람차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블루베리연구회, 지역 아동들에게 블루베리 나눔

정읍시 블루베리연구회(회장 나동균)가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 40kg을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농심(農心)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19일 정읍애육원, 천사마을, 만복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부를 주도한 나동균 회장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정읍 농업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용철 교수팀, AI로 난치성 폐질환 진단 연구 '주목'

세계 권위 국제학회서 '최우수발표상'

전북대학교 난치성 호흡기 치료제 개발 연구소 이용철 석좌교수(사진) 연구팀이 난치성 폐질환을 AI를 활용해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연구로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팀은 최근 열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국제학술대회(KAAACI International Conference 2025)에서 'Outstanding Oral Presentation Awards - Excellence Prize'를 수상했다.

이번 학회는 전 세계 28개국 750여 명의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전문가들이 참가해 240편 이상의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한 국제적 행사로 치러졌다.

이 교수팀은 'A novel machine learning approach to assist early diagnosis of United Airway Disorders'라는 연구를 통해 통합기도질환 중 하나인 범모세기관지염의 조기 진단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진단기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는 이용철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전북대 의대 김종석, 정재석, 채금주, 이환진 교수 등이 공동 참여해 난치성 호흡기 질환의 진단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새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의료계 전반에도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등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교수팀은 전북대병원이 지난 10년 이상 축적해온 환자 데이터를 포함한 다차원 실사용데이터(RWD)를 기반으로 초정밀 맞춤형 호흡기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철 교수는 "AI는 신약 개발과 정밀 치료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통합기도질환 및 난치성 호흡기 질환의 치료제 개발과 진단에 있어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임경문 작가, 전통화심도요 개요식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2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가마를 보유한 '전통화심도요'에서 임경문 작가의 개요식을 진행했다.

이번 개요식은 '전통화심도요'에서 10년 만에 열린 개요식으로, 임작가의 154번째 장작가마 소성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14기의 장작가마를 보유한 화심도요 중 한 기에서 진행된 이번 소성에서는 약 200여 점의 도자작품이 제작됐다. 임 작가는 이번 개요식을 기념해 작품 1점을 완주군에 기증하며 지역과의 예술적 연대를 실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장마철 대비 봉사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22일 익산 일대 신자와 이웃 등 200여 명이 익산역부터 중앙시장을 경유해 서동시장을 지나 중앙동 5km 구간 도로와 골목을 정화하며 빗물 배수로와 배수구를 청소했다.

빗물 배수구는 기후변화로 폭우나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6월부터 전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빗물 배수구 정비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과 시장 일대는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아 장마철이 오기 전 대비가 필수적인 곳이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지렛대로 배수구 덮개를 열고 내부를 가득 채운 토사와 쓰레기, 낙엽 등을 곡괭이·삽 등으로 퍼냈다. 수거한 쓰레기는 50리터 쓰레기봉투 70개를 가득 채웠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사노조, 교권 보호 유재복·최성민씨에 감사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0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전북 지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신장에 헌신해 온 두 인물의 공로를 인정해 마련됐다.

유 교권보호관은 2023년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 이후 교권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 범위와 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교권보호관은 그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지난 해부터 약 140여 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처리했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 동행 및 법률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성민 기자

덕진서-자율방범연합대 방범가족한마음대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와 덕진구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22일 '학교폭력?범죄예방' 결의대회 및 방범 가족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강화 및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 유공 자율방범대원 표창 수여에 이어 단합 시간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민 커뮤니티 온빛모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정성 나눔

정읍시민 커뮤니티 '온빛모임'은 지난 20일,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생필품이 담긴 선물꾸러미 4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지역사회로부터 환대받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주목되는 실용 외교의 진화 '사령탑 역량'이 관건 (1)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외교안보·국방·대북통일 분야에 국한해 본다면 2022년 대선공약과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공약 체계가 확연히 달라졌다. 2022년 대선공약집은 대북(평화번영), 외교(실용외교), 국방(스마트강국)의 순이었다. 그런데 2025년 대선공약집에서는 국방개혁(내란극복), 외교·대북(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방위산업(신산업 집중육성)의 순이다. 국방개혁을 맨 앞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경제외교가 들어왔고 그 뒤를 전통외교와 대북 공약이 뒤를 이었으며 맨 마지막에 방위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이번 대선이 내란 성격의 불법 계엄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극복에 맞춘 국방개혁이 맨 앞에 오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혼란한 국제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로 지난 2022년 맨 앞에 기술했던 대북 항목이 뒤로 밀렸다. 방위산업은 별도의 신산업육성 항목에서 다뤄졌다.

공약 내용도 크게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공약의 축소이다. 2022년 공약집에서는 5개 항목이었지만, 2025년 공약집에서는 3개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북핵 협상이나 남북 군비통제 항목은 외교부나 국방부의 과제다. 순수한 통일부 과제는 '남북인도주의 협력과 교류협력의 모색과 추진', 한 항목뿐이다. 2022년 공약에 등장했던 '종전선언'와 '한반도 평화경제체제'가 삭제되었고 '평화협정'도 '핵협상 진전에 따른다'고 조건화하여 현상변경적인 적극적인 공약이 사라졌다. 이에 비해 '9.19 군사합의' 복원, 통일방안의 발전 방안 마련, 평화경제의 중장기 추진 등 현상유지적인 내용으로 공약이 바뀌었다.

외교분야는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했다. 똑같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걸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미·중 균형외교'에서 '한·미, 한·미·일 협력 + 중·러·북 관리'로 크게 바뀌었다. 북핵 문제의 해결에서도 2022년 공약은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했지만, 2025년 공약에서는 이를 빼고 '북·미 핵협상 촉진'으로 바꾸어 사실상 북·미 직접대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분야도 신중한 자세로 바뀌었다. 내란극복을 위한 국방개혁은 별도로 하더라도, 2022년 공약에서 내건 '선택적 모병제'는 여군 비율 확대, 군무원의 국방부 근무 허용을 포함하는 '병력모집의 다양화'로 변경되었다. 또한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전작권 환수 추진'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외교공약에서 첫 번째를 차지한 것은 경제외교다.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와 양자·소다자 경제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컨트럴타워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상설화하며 재외공관을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은 단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한미관계에 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방위비분담금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경제, 군사, 첨단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공약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 발전함과 동시에 한·중·일 3국 체제를 정례화해 역내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6월 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외 역할 확대나 일부 감축이 이루어지거나 5월 31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중국을 겨냥한 통합미사일방어체계(IAMD)에 한국 참가를 요구받게 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공약에서 밝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1.5트랙의 한일 미래위원회를 신설해 양국 협력 및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통상환경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포괄·점진적 범태평양파트너십협정(CPTTP) 가입 및 한일 FTA를 재추진한다. 또한 과거사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되,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제3자 변제안을 유지한다. 아울러 한일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일본대중문화를 완전히 개방한다.

공약은 한·러 관계에 대해 안정적 관리라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북·러 군사협력이 유지되고 있고 아직 북한군이 러시아에 잔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북한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러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복원, 한국기업의 재진출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러 간의 다각적 협력을 강화해 「북·러 조약」을 사문화(死文化)시키고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한다

2036 하계올림픽를 유치하기 위해 전북이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다. 어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은 전북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전북형 올림픽'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였다.

2천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체육, 문화관광, AI·학술, 지역발전 등 여섯 개 분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질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실천적 기구임을 방증한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나선 배경에는 전북이라는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가치를 세계에 증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요, 침체에 빠졌던 지역 성장 동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다. 올림픽은 전북을 단숨에 세계적 도시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글로벌 빅이벤트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의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유치 전략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다. 전북은 기존 경기장과 임시시설을 100% 활용하고, 새만금국제공항과 KTX 등 기존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SOC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환경 친화형 올림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쟁국 도시들에 비해 확연한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이번 올림픽은 전북이 그동안 축적해 온 K-컬처, AI, 탄소중립 기술 등 특화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문화와 기술, 자연이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는 전북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올림픽'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특히 도민 참여 중심의 홍보 전략은 지역 전체의 동참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유치 이후 성공적인 대회 운영까지 내다보는 진일보한 접근이다.

전북의 이번 도전은 과거 1988 서울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도약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지역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왔으나 올림픽 유치라는 절호의 기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북형 올림픽'이 다른 올림픽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IOC의 문턱은 결코 낮지가 않다. 전북은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설득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진정성 있는 유치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유치 명분과 당위성을 넘어서서 '왜 하필 전주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전달해야 한다. 도민과 출향민, 청년세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유치 추진위는 전북의 역량이 결코 수도권에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조직이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북이 품은 그 가능성이 꼭 결실을 맺도록 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때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믿는다. "세계는 전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이 거대한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오늘의 시

대화 / 류근

이쪽에서 소리를 멈추자
저쪽에서도
곧 소리를 멈추었다

소리 안에 있을 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침묵도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에도 크나큰
성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침묵이 데려다준
소리로 언어를 만들어

비로소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쪽과 저쪽의 가슴이
저쪽과 이쪽의
가슴에 전하는
깊고 따뜻한
침묵의 발음이었다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후 등단 18년 만인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렸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 독자광장 |

"변화무쌍한 신종 사기 수법에 절대 속지 말자"

며칠 전, 관내 대형약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구급함과 방독면을 구입한다면서 대금을 지불할 테니, 그중 금액 20%를 현금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안한 공문을 받았다며 보여주었다. 해당 약국은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했고, 우리는 현장에 나갔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부문별하게 접근하는 신종 사기 수법, 노쇼(No-Show)이다.

이 노쇼(No-Show)는 호텔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몇 달 전,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처한 식당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많은 인원이 식당에서 식사할 예정이라며 예약을 했다. 업주는 음식을 미리 준비했지만,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다. 결국 업주는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또한 군부대나 기관 등을 사칭해, 당장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건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 일종의 커미션을 요구한다.

이처럼 신종 사기 수법은 단순한 전화사기, 즉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진화를 거듭해, 이제는 괴물체처럼 되어가고 있다.

노쇼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먼저, 사전 결제 없이는 절대로 대량 주문을 받지 말자. 과거 거래가 없는 자가 전화로 주문을 하려 한다면, 예약금을 받도록 하자. 자신만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군부대나 기관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자. 그 직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주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자. 배송비 선입금이나 물품 대금 대납 등,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매말라가는 사회심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신종 사기 수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그것이 바로 지피지기의 한 수임을 명심하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이광진 경위

문화재열전

강천사 오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종교신앙, 불교, 탑
-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270 (청계리)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www.jeonbuktimes.co.kr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 어르신 무더위 걱정 뚝!!

여름철 노인복지시설 집중 점검·취약노인 보호 강화

장마·폭염 대비 노인복지시설 점검
경로당 연장 운영·보호대책 수립 등
안전한여름나기 종합대책 본격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 폭염 시기를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총 498개소의 경로당을 비롯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3개소),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특성과 여름철 기후 위협에 맞춰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추진 중이다.

먼저,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2025년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대비 상태 △감염병 및 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 △화재 등 비상시 피난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6월 16일까지 모든 시설의 자체 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재해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관내 23개 읍면동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대책은 △어르신 안전확인 △상황보고 체계 유지 △안전수칙 적극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6월부터 9월까지를 중점 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제적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로당 498개소에 대해서는 폭염·폭우 집중기간인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기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던 경로당은 해당 기간 동안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09시부터 21시까지 개방되어, 무더위쉼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게 된다.

시는 냉방기기 사전점검과 냉방용품 비치, 응급물품 확보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또한, 신축 중인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9일 기술감사팀장을 비롯한 관련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 실태는 물론, 우기 대비 재해 예방 대책과 공사장 주변 환경 피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공사 현장에서도 어르신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서는 돌봄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침수 위험 여부 확인 △우기 대비 안전 안내 △응급 상황 시 대피요령 안내 △비상연락망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도 함께 지원하여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남원시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7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는 총 5,264명의 어르신이 참여 중이며, 지난 6월 16일부터는 여름철 폭염 및 호우주의보 등에 대비해 어르신 건강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실외 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매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조정, 휴식시간 확대, 폭염 대응 물품(쿨토시, 선크림 등) 배부 등을 통해 혹서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폭염과 장마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 시설과 관련 기관이 협력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